

## 광주시, 인문학-예술-비엔날레 '3대 문화축' 조성

광주시가 인문학·예술·광주비엔날레를 잇는 '3대 문화축'을 새로 만든다. '인문학 산책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트 에비뉴', '광주비엔날레 스트리트' 등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문화거리를 조성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성장동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사업(아특회계)'으로 국비 222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국비 172억원 보다 29%(50억원) 증가한 것으로, 광주시는 아특회계 사업을 통해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19건을 추진한다.

이번 아특회계에는 ▲인문학 산책길 조성(1억원) ▲ACC 아트 에비뉴 조성(2억원) ▲광주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1억원) 등 대표 문화거리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됐다.

'인문학 산책길 조성사업'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 속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광주 전역에 인문학적 줄거리(스토리라인)를 구축, '인문도

인문학산책길·ACC아트에비뉴·비엔날레 등 문화거리 3곳 신규 추진 아특회계 222억원 확보... 전년보다 29% 늘어 문화기반 확대 동력

"인문·문화·산업 전반 성장동력 마련... 내실 추진으로 문화허브 도약"



시 광주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트 에비뉴 조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도로변을 특화문화거리로 조성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양림동-광주공원 등 문화거점을 연결해 하나의 문화축을 형성한다.

'광주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사

업'은 2028년 광주비엔날레 신(新) 전시관 개관에 맞춰 광주비엔날레 스트리트 등 관광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기존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광주비엔날레 신(新) 전시관 건립 사업에는 55억원이 반영돼 2026년 착

공할 계획이며,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45억원) ▲디지털아트 컬러랩 구축·운영(6억원) 등 문화기반 확충도 지속된다.

또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14억원)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10억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8억8000만원)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4억원) 등 8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국비 확보로 인문학 산책길 조성,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콘텐츠 산업 육성 등 인문·문화·산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며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무안군, 무안거리문화예술제 오는 24일 개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연말 문화 나들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4일 남악 중앙공원 일원에서 무안거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무안거리문화예술제는 '문화 캔버스 - 도시, 예술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기존의 음악 공연 중심 거리예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지역예술가와 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참여형 문화예술제로 마련됐다. 일상 속 거리 공간을 예술로 채워 군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무안군립국악원과 무안국악협회 선보이는 '국악한마당'을 시작으로 ▲관내 청소년이 꾸미는 '뽀뽀무 콘서트' ▲어린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는 산타할머니'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밖으로 나온 영화관'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또한 가수 경서, 정재욱과 뮤지컬 가수 루이스조이, 박소연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콘서트도 펼쳐져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그 밖에도 관내 작가들과 함께하는 컵접시 만들기,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캘리그라피 달력만들기, 솟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목포대



학교 미술학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길거리 초상화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초의차 한상 체험은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로 운영되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전통차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

한편, 무안거리문화예술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안군 제공

전남음악창작소, 트롯 천재 최수호와 송년콘서트 성료

지역 대표 뮤지션과 트롯 스타 최수호가 만들어낸 세대 통합의 장

강진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기태) 산하 전남음악창작소가 지난 18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2025 전남음악창작소 뮤지션 송년콘서트'가 600여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올 한 해 전남음악창작소가 발굴하고 육성한 지역 뮤지션들의 창작 성과를 군민들과 나누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최수호와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지역민에게 고품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뿌리(전통)', '줄기(창작소 뮤지션)', '꽃(스타 최수호)'이라는 테마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소리'는 지역 풍물패 장터가 많았다. 신명 나는 길놀이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며 송년 콘서트의 힘찬 포문을 열었다.

이어지는 무대는 전남음악창작소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지역 실력과 뮤지션들이 채웠다. '조선판스타' 우승자 출신 소리꾼 김산옥은 대표곡 '인연', '빛이 된 당신' 등을 열창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고, 재즈 보컬리스트 고아라는 'The Christmas Song', 'New York, New York' 등 감미로운 재즈 선율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음악감독 최수호와 건반 연주자 강윤숙이 이끄는 밴드는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수준 높은 연주로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특별 무대에서는 지역민과 창작소 밴드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강진의 전통문화인 '강진 청자골 강강술래'가 아름다운 연출과 함께 재현되었으며, 이어 출연진과 관객 전원이 '강진군민의 노래'를 국악 크로스오버 버전으로 합창하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마지막 무대는 '강진의 손자' 가수 최수호가 장식했다. 강진군 칠량면이 외가인 최수호는 고향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등장해 '조선의 남자', '나불도 연가', '사랑아' 등 히트곡을 열창하며 폭발적인 무대 매너를 선보였다. 앵콜 무대에서는 트롯 메들리로 관객들과 하나 되며 2025년 송년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공연을 관람한 한 강진군민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며 "특히 군민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를 때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태 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오늘 공연은 전남음악창작소가 키워낸 지역 콘텐츠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뮤지션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총괄한 정현준 전남음악창작소 소장은 "추운 날씨에도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도 음악을 매개로 더 많은 사람이 강진을 찾아오고 머물게 하는 '문화적 관계인구'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나주문화재단,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자연의 영토' 전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연말연시 생태·예술 융합 전시 선보여

나주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생태와 예술 융합 전시를 선보이며 지역전시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기반 강화에 나선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유형3 미술콘텐츠-전시공간 매칭 지원' 공모에 선정돼 전시 '자연의 영토 함께-세계만들기에 대한 예술적 물음'을 오는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지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학, 인문, 예술이 협력하는 실천적 형식의 전시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술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전시 도슨트 투어가 진행되며 2026년 1월 10일과 24일에는 관객 맞춤형 전시 투어와 함께 전시 참여 예술가와 과학자가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